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예술백신' 접종

'인당수 투신과 환생'

전주시, 시민 등 대상 총 50회 걸쳐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영화·판소리·가야금·한지공예 관련 단체가 각 10회 걸쳐 진행

전주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진 우려가 큰 시민들을 찾아가 예술백신을 놓아주기 시작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마음치유가 필요한 시민, 의료진, 사회복지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백신(Vaccine)'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술백신'은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을 극대화시켜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화, 판소리, 가야금, 한지공예 관련 4개 문화예술단체가 각 10회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소방직·사회복지공무원과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7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한지공예, 판소리 등 전통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지부(대표 정낙성)에서는 전주영화호텔 영화도

서관에서 '2020 화요시네마 with 예술치유'를 주제로, 영화 감상과 해설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한 한스리그(대표 손주경)는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든 의료진과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를 회담 15명씩 초청해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소리음악치유연구소(대표 김명곤)와 판소리합창단(대표 최가현)도 각각 전주소리문화관과 유아문화의집 등에서 가야금과 판소리, 민요 등을 활용한 전통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펼치게 된다.

이외에도 한문화예술센터(대표 임승환)는 예술치유라는 독특한 예술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지원과 전주대 심리치료 연구소와 함께 심리척도검사 지원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담당하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치유를 원하는 시민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로 마음치유가 필요한 시민, 의료진, 사회복지사,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백신(Vaccine)'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최라기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예술백신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의 위로와

활력을 부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활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새로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9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 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29일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이하 담판)심청가 중 '인당수 투신과 환생'을 예원당에서 펼친다.

담판은 판소리의 인류무형유산으로 가치를 극대화하고 관객들에게 판소리의 인문학적 지식을 향상시켜주는 해설이 있는 판소리 공연이다. 심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올해 담판에서는 풀이꾼 원기중(국문학 박사)과 이야기꾼 왕기석(국립민속국악원 원장)의 진행으로 매달 명창들의 판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오는 29일 감상할 소리대목은 심청가 중 가장 눈대목이라 할 수 있는 범피종류 대목을 시작으로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까지를 국립창극단 김지숙 명창의 소리로 만나게 되며, 카카오톡 채널 및 네이버 포스트에서 공연의 내용을 미리 만날 수 있으며, 공연실황 음원은 공연종료 후 네이버 오디오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예원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객석 띄어 앉기로 사전예약을 통해 선착순 100명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은 전화(063-620-2324~5)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직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다이나믹한 연기... 예술성 넘치는 노래...

'코믹오페라'의 정수



완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버섯피자' 27일 공연
만남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해프닝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

완주에서 코믹오페라 공연이 펼쳐진다. 19일 완주군은 오는 27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코믹오페라 '버섯피자'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코믹오페라 '버섯피자'는 시모어 바랍의 단막극 오페라로 풍부한 유머와 넘치는 희극극으로 전 출연진이 공연 내내 무대에서 다이나믹한 연기와 예술성 있는 노래로 지루할 틈 없이 관객을 붙잡아 준다.

무겁지 않게 유머러스한 연기와 번안으로 대중성에 가치를 두어 오페라 감상의 초보관객과 특히 청소년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만남, 사랑, 배신, 질투, 증오,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해프닝을 코미디 형식으로 풀어내 연극적 요소와 이태리 벨칸토 선율이 조화롭게 펼쳐진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객석을 478석에서 230석으로 축소하며, 공연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코믹 마살아츠 퍼포먼스 '점프'를 내달 24일에 공연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영상홍보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진행

순창군이 항공촬영과 영상편집에 관심있는 순창군민을 모집한다.

군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순창군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영상홍보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드론원리부터 항공 촬영방법, 촬영구도, 영상편집 등 영상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과정이 아닌 심화 과정으로 준비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교육인원은 전체 10명 이내로, 오는 24일까지 교육을 희망하는 순창군민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